

납품업체에 ‘갑질’…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239억 과징금

부당감액 횡포 홈플러스 220억 최고
공정위 시정조치 무시…검찰고발키로
‘부당반품’ 이마트 10억·롯데마트 8억

대형마트 3사가 부당감액과 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돼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납품업체에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감액 등의 행위를 한데다 시정조치까지 무시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홈플러스에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고발도 진행키로 했다.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검찰 고발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부당반품과 종업원 부당사용 등이 적발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각각 10억원과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중 총 121억원을 ‘판촉 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했다. 매월 상품군별로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 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을 볼 때 법이 허용하는 판촉 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3년 판매 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수취를 금지하자 홈플러스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인건비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떠넘겼다. 점내 광고 추가 구매 또는 판촉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공정위는 그 이전에도 감액과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를 전가하다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방식만 바꿔 위반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 밖에도 21개 납품업자의 시즌 상품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하고, 15개 점포

를 개점하면서 16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70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이마트는 경우 2014년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았다.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이마트는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3개 납품업자에 시즌 상품이 아닌 1만 4922개 제품(약 1억원)을 시즌 상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5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1억8000만원)에 대해 약정한 반품 기간(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을 지나서 반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납품업체들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플레이엑스포,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

전시회 국제임쇼·수출 상담회 확대

차세대 융복합 게임전시회 ‘플레이엑스포(PlayX4)’가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기능성 게임 전시회 ‘국제임쇼’를 확대·개편한 행사로, 게임 산업 비전 제시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장 규모는 지난해 1개 홀서 2개 홀로, 수출상담회도 2배 확대했다. 최신기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컨퍼런스도 열린다. 전시회에는 넷마블게임즈와 웹젠, 드래곤플라이, 소니 등 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게임콘텐츠와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선보인다.

19일과 20일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주력 시장인 중국, 일본 유럽은 물론 북·중남미의 퍼블리셔를 포함해 총120여 곳이 참여한다. 게임업계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컨퍼런스도 열린다.



국제임쇼를 확대한 게임전시회 ‘플레이엑스포’가 1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다. 국제임쇼 코리아 2015 전경. 사진제공 | 플레이엑스포 사무국

‘VR과 차세대 게임’이라는 주제의 메인 컨퍼런스는 아마존게임서비스 사업 총괄 책임 낸 윈터스의 기조연설 등이 준비돼 있다.

그 밖에도 부대행사로 보드게임 대회와 ‘피파’ 대학생 리그전, 프로게임단 락스타이거즈의 팬 미팅 등이 개최된다.

김병근 기자

‘오렌지팜’ 스타트업 중국 진출 돕는다

한·중 스타트업 발굴 등 업무 협약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션 센터 오렌지팜이 중국 현지 인큐베이션 센터 이노즈와 함께 ‘한·중 양국 스타트업 발굴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한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중국 진출 시 법인설립, 초기 정착에 대한 지원, 중국 사업 시 필요한 현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양국의 교류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류회 및 데모데이를 공동 기획할 예정이다. 중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역시 한국 오렌지팜에 입주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오렌지팜은 24일 오렌지팜 서초센터에서 오렌지팜 베이징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션 센터 오렌지팜은 중국 현지 인큐베이션 센터 이노즈와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를 주고받은 이노즈 리우이 부총경리(왼쪽)와 오렌지팜 서성봉 이사. 사진제공 |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지난 2014년 4월 정식 출범한 오렌지팜은 서울 서초센터와 신촌센터, 부산 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글로벌게임센터 내에 설립한 부산센터까지 총 3곳의 입주 공간을 마련하는 등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싼타페, 美 IIHS충돌테스트 최고등급

지붕 강성 등 5개 충돌검사 ‘우수’
전방충돌 회피 장치 평가 ‘최우수’

현대자동차는 18일 싼타페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차량 충돌 시험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탑 셰이프 티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싼타페는 전면 충돌, 측면 충돌, 지붕 강성, 머리지지대 및 좌석 안전, 스텔 오버랩의 5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우수(good)’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방 충돌 회피 장치 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아 IIHS가 최고의 안전 차량에만 부여하는 ‘탑 셰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했다.

탑 셰이프티 픽 플러스는 5개 충돌안전 평가에서 모두 우수를 획득하고, 전방

충돌회피 평가에서는 기본(Basic) 이상 등급을 획득한 차량에 한해 주어진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 ‘싼타페 더 프라임’을 출시하면서 차체 보강재 확대 적용, 차체 구조 개선으로 안전성을 대폭 높여 스텔오버랩 평가에 대응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현대차 제네시스·쏘나타·투싼을 비롯해 기아차 쏘울·쏘렌토·카니발·K5 등 주력 차종들이 IIHS로부터 ‘톱 셰이프티 픽’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신차가 연이어 충돌 테스트 결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며 “명실공히 안전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상품성을 갖춘 만큼 판매 확대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4억원대 최고급 럭셔리카 롤스로이스 ‘던’을 출시했다. 4인승 컨버터블로 실내 정숙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사진제공 | 롤스로이스

4억원대 럭셔리카 롤스로이스 ‘던’ 출시

롤스로이스 모터카는 18일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4억원대 최고급 럭셔리카 롤스로이스 ‘던’을 공식 출시했다.

‘던’은 최고급 4인승 컨버터블이다. 오픈카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며 지붕을 열거나 닫았을 때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외관 패널의 80%를 재

설계해 탄생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컨버터블’을 목표로 6겹으로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실내 정숙성이 뛰어나며 소음없이 개폐가 가능하다.

새롭게 디자인된 서스펜션 구조는 차체 강성과 중량 분산 측면에서 컨버터블 특유의 반응을 잡아줌과 동시에 롤스로이스만의 부드러운 주행성능을 제

공한다.

6.6리터 트윈 터보 V12 엔진이 장착돼 있으며 최고 출력은 563마력, 최대토크는 79.6kg.m, 제로백은 5초다. 국내 판매 시작 가격은 4억4900만원부터(부가세 포함). 국내 주문 차량은 올해 여름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100대 명산 완등 맹태섭-이현희 부부 “다음은 백두산”

■ ‘이색 동호인’의 세상

등산 10년만에 전국 명산 160개 정복
“똑같은 산을 올라도 갈 때마다 달라
최고의 산? 설악산·사랑도 지리망산”

지난 4월 13일, 울릉도 성인봉 정상에 오른 부부의 얼굴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상기된 아내 이현희(50)씨의 얼굴을 바라보던 남편 맹태섭(52) 원장(인천 소재 플러스치과)이 말했다. “축하해”.

부부가 함께 산에 오른 지 10년, 이날 성인봉 정상에 오름으로써 이들 부부는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100대 명산 완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의 산하’ 인기 100대 명산을 포함하면 총 160여 개의 산을 올랐다. 100대 명산을 오른 등반가는 많지만 부부가 함께 완등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색 등산부부로 알려진 맹태섭 원장과 아내 이현희씨가 등산에 입문한 것은 2006년 5월 5일. 당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딸을 데리고 북한산 백운대에 올랐다. 동네 마트에서 한 결례석사 신은 등산화가 이날 등반을 위한 장비의 전부였다. 심지어 물도 가져가지 않았다. 맹 원장은 “한 마디로 무모한 입문이었다”라며 웃었다.

딸들은 이후 등산이라면 진저리를 쳤



국내 3대 계곡 중 하나인 지리산 칠선계곡에서 포즈를 취한 맹태섭 원장(오른쪽)과 이현희씨. 혼자서도 힘든 전국 100대 명산 완등을 부부가 함께 10년에 걸쳐 해낸 열혈 등산부부이다. 사진제공 | 맹태섭

지만 부부는 등산의 재미에 제대로 킁했다. 일단 인근의 산부터 살살 가보기로 했다.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천계산. 서울에 있는 산을 모두 올랐다.

그러다 우연히 등산로에서 산악회 안내자를 보게 됐다. 태백산 눈꽃산행에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부의 눈이 반짝였다.

“태백산 정상에서 설경을 봤는데 정말 끝내줬다. 엄청난 행복감을 맛봤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후 부부는 안내 산악회를 따라 전국

“붙이면 진달래·철쭉, 여름은 계곡, 가을은 단풍, 겨울은 눈꽃 …”을 노래처럼 읊었다. 산을 모르던 시절에는 그 산이 그 산으로 보였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똑같은 산을 올라도 갈 때마다 다른 게 산이다. 계절별로 다르고 사람의 기분

에 따라 다르다. 입구에 따라 다르고 출구에 따라서도 다르다.”

맹 원장은 “100대 명산 등반은 작정하고 하면 2년이면 끝난다”라고 했다. 그저 산이 좋아 다니다 보니 10년이

걸렸다는 얘기. 마음에 드는 산은 여러